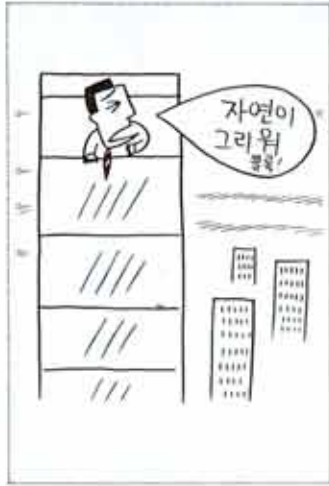


건강백서 28

폐 2
양질의 공기를 확보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공해가 어항속에서 제대로 살수 없을 정도로 심한 공해속이나 고도산업사회가 우리에게 많은 혜택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모순을 만들고 있다고 보겠다.



단하고 살고있다. 전기로 가동되는 공기청정기가 있더라도 옛날 찰오지 문을 통해 자연순환되는 신선한 공기와 온도와 적용하면 시질과는 비교도 안되게 약해진 우리의 신체가 되어 버렸다. 참고로 공기청정기도 너무 장시간 켜면 오존의 과발생으로 피부염에 자극이나 손상을 줄수가 있으므로 가습과 더불어 적당히 사용하는 지혜를 행해야 한다.

인후·기관지 질환도 폐에 영향 울루·은행등 섭취 폐보호 효과

알아차리고 기를 알아보는 노력이 한창이다. 과거에는 기란 난해(難解)한 이론으로만 치부해 버리고 알아보고 조차 않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해 하려고 노력하고, 기에 도움이 된다는 기구나 방법들을 부단없이 찾고있다. 이것은 가혹이나 공해에 허덕이며 산소부족에 시달려 '자연보호 그린운동'을 하는것이 바로 생기를 찾아 기회복을 추구하는 노력과 맞아떨어지는 것으로 우연만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폐에 좋은 식품이다. 옛부터 은행나무 밑에 살면 해소가 없어진다는 속설이 있다. 은행(白果)나무의 공기 청정효과와 그 과실의 찬성치로 효과를 강조한 말일 것이다. 그러나 과용하면 발풍(發風)하므로 5~8개씩 익혀서 복용해야한다. 반대로 포도나무 밑에서 살면 폐가 상한다는 말도 있다. 이것은 꽃가루로 인한 피해를 말한 것이다. 산천의 자연수목에 의한 알러지도 조심해야한다. 건축물때에 환기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후일 건물의 관리시에도 환기통의 청결한 유지가 건강한 폐를 유지하는 관건이 된다는 것을 재인식 할때가 되었다.

운을 상 (한의학 박사)

열흘밤의 꿈 1 나쓰에 초세기 11

이런 꿈을 꾸었다. 스님이 있는 방을 둘러나와 벽도를 그려 지기 방으로 돌아오자 등잔불이 부엌에 켜져 있다. 한쪽 두릎을 방석 위에 세우고 등심을 뜯어낼 때 꽃송이 같은 그 등잔 불꽃이 붉고 붉은 탁자 위에 떨어졌다. 동시에 방안이 갑자기 환해졌다.

"너는 사무라이(武士)인 것이다. 사무라이라면 깨치지 못할리가 없을 테지."하고 스님은 말했다. "그렇게 언제까지나 깨치지 못하는 걸 보니 사무라이가 아닌 게로구나"하고 말했다.

"깨치지 못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알할 때까지는 반드시 깨쳐 보겠다. 깨친 뒤에 오늘 밤 다시 스님을 만나겠다. 그리고는 스님의 목과 깨달음을 교환하고야 말겠다. 깨치지 못하면 스님의 목숨을 빼앗을

을 끊겠다. 사무라이가 목을 보고 살아 있을 수는 없다. 깨곳이 죽어 버리자.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의 손은 방석 밑으로 갔다. 그리고 붉은 칼

자루에 넣은 단도를 끄집어냈다. 손잡이에 힘을 주고 칼자루를 꼭 잡아매니 차가운 칼날이 대번에 어두운 방안에 번득였다.

나는 당장 죽이 썰려고 싶어졌다. 온몸의 피가 오른손 팔꿈치로 흘러들어, 쥐고 있는 칼자루가 끈끈해진다. 입술이 떨렸다. 단도를 칼자루에 다시 꽂고 오른

1996 문학의 해
해외불교문화
다이제스트



그림·심만삼

쪽 곁에 가까이 놓고 결가부좌 했다. 조주(趙州) 말, "무어(無也)라." 무란 무엇이나? 엉터리 같은 중등. 이를 바드득 갈았다.

평소의 두 배가 크게 뜨고 참선(參禪)을 했다. 무를 관찰이 갑자기 아파왔다. 무를 끊어질뻔 무슨 상관이라 생각했다. 그래도 아프다. 괴롭다. 무(無)는 좀처럼 나타내지 않는다. 나타난다고 생각하면 곧 또 아파온

다. 화가 난다. 분해 죽겠다. 몹시 분하다. 그래도 꼭 잡고 가만히 앉아 있었다. 견딜 수 없을 만큼 간질한 것을 가슴속에 간직할 채 잡고 있었다.

그렇지만 무(無)는 조금도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저 적당히 엉터리로 앉아 있었던 것 같다. 이때 갑자기 양방 시계가 땀! 하고 울리기 시작했다. 오른손을 곧 단도 있는 대로 가져갔다. 시계가 두번 째 땀! 하고 울었다.

【문지인력】
동경 태생으로 일본 근대 소설의 실용적인 개척자다. 동경대 영문과를 나와 영국에서 유학했다. 1인칭 독백이나 사소설 형식의 작품을 많이 남겼다. '열흘밤의 꿈'은 사소설형식의 작품으로 무권의 불교관련 내용이 지적 비판이어서 본보인다.

마음에 쓴 금강경 2



나 는 그런 어리둥절한 마음으로 사경을 하게 되었다. 아무래도 글씨연습하는 것밖에 없었지만 함께 하는 사람들의 진지한 모습에서 뭐라 말로 표현 못할 경건함을 느낄 수 있었다.

은 남편은 코웃음을 쳐며 말했다. "법불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기도를 하는 것도 아니고 글씨만 쓰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된다는 거야."

나는 그날 다짐했다. 어떻게 해서건 우리 내식구가 모두 사경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이다. 그리고 남편에게 내 의견을 말했다. 그러나 남편은 "당신이나 많이 써서 나도 극락에 함께 데려가 달라"며 농담으로 넘겼다.

나는 안되겠다 생각에 아이들을 먼저 설득했다. 하루 한장씩 빈칸을 채워오면 상품을 준다는 것이었다. 특별히 간식도 만들어 주고 용돈도 더 준다는 공약을 걸었던 것이다.

그야말로 글씨 연습삼아 시작해 보려고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 딸이 "엄마, 짚은 물라도 참 맛이 좋은 것 같아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래서 나는 두 아이를 학생법회로 보냈다. 구수 반던 일요일에 종교를 이유로 자유시간을

'집안을 사경도량으로 만들자' 아이들은 열심히 따라주었으나 남편은 못마땅하게 생각했다

단다"라고 가르쳐 주었다. 나는 법당이란 곳을 처음가서 처음으로 해본 사경에 대해 조금씩 흥미를 갖게되었다. 열정도 잘 못하고 찬불기도 아직은 아는 것이 없는 입장에서 사경은 쉽다는 점이 내 마음을 많이 끌어당긴 것 같았다.



그림·이준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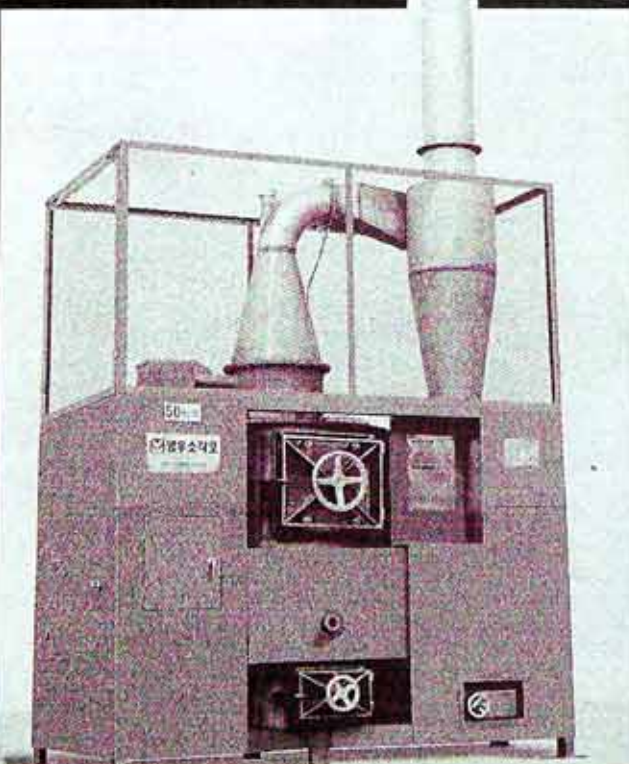
을 털어 놓았다. "보살님은 이제 불자가 되셨습니다. 벌써 우리 법당 나오신지도 몇달이 지났으니깐요. 남편께서 사경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해 보세요. 보살님이 잘만 하시면 남편과 아이들이 모두 사경의 율려를 배우고 집안을 사경도량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보, 이 두꺼운 책은 <금강경>인데 이번주 내로 내가 이 책 다섯권을 다 쓸 자신이 있거든요. 한권에 세번씩 쓰니까 이 경전을 열다섯번 쓰는 거거든요. 물론 한권을 마칠때마다 108배를 할 거구요."

"아니 그거 한다고 식구들 골길 작정이야?" 남편은 짜증스러워 했다. "아뇨, 전보다 더 맛있는 반찬으로 모시죠. 내가 다하고나면 당신도 한번 해 보실래요."

최선덕행 (서울 노원구 중계동)

소형 소각로의 선두 주자 영우실업 Z형 소각로



쓰레기 고민, 깨끗이 태워드립니다

Z형 소각로의 4대 특징

- 1. 조작이 간편합니다.**
소각시 대기 인력이 필요없는 자동 제어 장치 부착
- 2. 공해 발생의 염려가 없습니다.**
매연 1도 이하(기준 2도 이하) 진여재 0.78%(기준 2.0%)의 청정 소각로로 소각시 전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 3. 가격이 저렴합니다.**
시간당 30kg, 50kg, 100kg의 소각 능력을 가졌으며 다른 소각로보다 비용 부담이 적습니다.
- 4. 수명이 깁니다.**
소형이면서도 내화벽돌 및 캐스터블 시공으로 안정성이 높고 수명이 깁니다.

영우 소각로의 푸른 세상 만들기

이젠 태울 수밖에 없습니다! 매립 방식의 쓰레기 처리는 매립지 부족, 침출수 발생 때문에 한계에 봉착했습니다. 이제는 태울 수밖에 없지만 소각 방식엔 매연 처리가 또 문제입니다.

매연공해 완전해결!
그러나 싸이클론 원리(제트기류 방식)를 채택한 '영우 소각로'가 매연문제를 일거에 깨끗이 해결했습니다.

Z형 소형 소각로는 무공해 청정 소각로입니다.
영우실업의 Z형 소형 소각로는 강화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의한 성능검사에 합격한 업계 최초의 소형 소각로입니다.

이미 2백여 대의 관납실적이 있습니다. 개발 1년 여에 각각 단위의 관공서, 금융기관, 학교 등에 2백여 대를 납품했으며 고양시, 성남시 등의 97년도 소요분중 90%를 이미 수주했습니다.

'영우실업'을 꼭 확인하십시오.
(유사품이 나돌고 있습니다)
■ 1년 간 AS 보장
■ 사찰, 국립공원 등에 꼭 알맞는 규격입니다.

소형 소각로 제조 전문
영우실업주식회사
본사·공장:경기도 고양시 사리현동 267-1
TEL: (0344) 64-7236, 62-3488
FAX: (0344) 62-7012